

이병주의 『지리산』과 부르주아 지식인의 공산주의

정 주 아*

요약

이 글은 이병주의 『지리산』을 통해 식민지 시대에 공산주의 이론을 접한 학병 세대의 세대적 조건 및 ‘부르주아 인텔리’라는 계급적 조건이 서사에 구현되는 양상에 주목하였다. 주요 논점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일제와 공산당에 부역했다는 비난에 시달리면서도 이병주가 공산주의 서사, 특히 남로당 서사를 반복적으로 써내야만 했던 이유를 묻는다. 『지리산』의 핵심인물인 ‘하준수(남도부)’는 학병 거부지이자 남로당 간부로서 학병세대의 이중부역 문제를 재론하는 핵심적 실마리가 된다. 둘째는 이병주의 남로당 관련 저작들이 공통적으로 공산주의에 반(反)하는 형태로 발화되는 현상을 살핀다. 특히 교조화된 공산당을 맹렬히 비판하면서도 정작 공산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양면성에 주목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이중적 태도를 ‘비-공산주의’의 영역이라 규정하고, 그 성격을 하준수가 조직한 보광당의 재현 양상과 관련하여 다룬다. 마지막으로 공산주의를 향한 동경과 경계가 뒤섞인 착종 상태가 이병주에게 있어서는 비전향의 지조에 대한 옹호와 세속적인 기회주의에 대한 경계와 관련되어 있음을 살폈다. 당초 공산주의를 천황제 파시즘에 대한 투쟁수단으로 접했다는 세대적 측면 및 부르주아 가족의 생존과 영달이라는 태생적이자 계급적인 제약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이병주의 세대적 감각과 공산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양상을 살피고, 나아가 일반적으로 계급적 결합으로 지목되는 ‘부르주아 지식인’의 자질이 식민지 청년의 혁명적 열정으로서의 공산주의 사상과 만났을 때 빚어졌던 갈등의 양상을 논의하였다.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주제어: 이병주, 지리산, 남로당, 공산주의, 반공주의, 학병세대, 남도부, 부르주아

목차

1. 학병세대, 부르주아 지식인의 공산주의
2. 이중 부역의 낙인과 ‘하준수/남도부’의 상징성
3. 보광당 되살리기와 ‘비(非)-공산주의’의 실험
4. 비전향의 지조와 그 적들
5. 결론_어떤 윤리적 잣대의 감각

1. 학병세대, 부르주아 지식인의 공산주의

“나는 해방 이후 이날까지 일관하여 내 나름대로의 반공주의자였던 것이다.”¹⁾

주지하듯, 이 발언은 나림 이병주(那林 李炳注, 1921~1992)가 해방 후 자신의 행적을 남로당과 관련짓는 평론에²⁾ 대한 불쾌감을 안고 반론의 성격으로 내놓은 것이다. 좌익 계열의 지식인이라는 의혹은 평생 나림을 따라다닌 꼬리표와도 같았다. 그는 해방 이후 교사로 일하던 시절 인민군에게 ‘부역’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일이 있으며, 그 일의 여파로 고향 하동군에서 출마한 두 차례의 총선에서 낙선했다. 1961년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2년 7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던 것이나³⁾,

1) 이병주, 「추풍사」(『한국문학』, 1978.11), 『패자의 관』, 87면.

2) 해당 평론과 그에 대한 작가의 대응 등 관련 사항은 안경환, 『이병주 평전』, 한길사, 2022, 323-325면 참고. 안 교수는 “빨갱이, 빨치산 시비는 평생 이병주를 괴롭혔던 해묵은 의제”(325)라고 평가하고 있다.

3) 당시 이병주의 공소장에는 1950년 12월의 부역행위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 1960년 5월 말경 교원노조운동조합 고문으로 추천된 일 등이 명기되어 있다. 직접적인 체포의 명분은 「중립의 부제」(『새벽』, 1960.12), 「통일에 민족역량을 총집결하자」(『중립의 이론』 서문, 1961.4) 두 편의 논설이 용공사상을 고취한다는 혐의를 받은 것이다.(위의 책, 431-433면.)

1975년 7월에 제정된 ‘사회안전법’의 적용대상자였으나 면제를 받은 일⁴⁾ 등도 떠올려 볼 수 있다. 나림은 작품이나 에세이 등 여러 지면을 통해 공산당이나 공산주의자를 비판하는 언급을 해왔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 공산주의자 즉 ‘빨갱이’란 지칭이 생존을 위협하는 낙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사자가 느끼는 불안의 정도란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이에 저토록 단정적인 발언에는 청년 시절부터 그를 따라다니 의혹과 풍문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세간의 시선을 향한 간극함마저 묻어 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황을 참조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 나림은 왜 그토록 남로당에 관한 이야기를 열심히 썼는가. 이 질문에는 남로당(혹은 남부군)으로 지칭되는 일군의 공산주의자 집단에 대한 소재적인 애착과 이들의 결성부터 몰락에 이르는 역사적 기록에의 열정이 포함된다. 다시 말해 사상적으로 예민한 소재를 피하거나 침묵할 수 있음에도 굳이 ‘있는 그대로’의 남로당의 역사에 집착하는 이유를 묻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은 남로당을 제재로 한 나림의 장편 소설들, 『지리산』(1972-1985)⁵⁾, 『남로당』(1987)⁶⁾ 읽기 작업을 흥미롭게 만든다. 해방 직후 남한에 조직된 공산당의 역사와 생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두 편의 소설만큼 풍부한 사전적 지식을 담고 있는 자료는 흔치 않다. 당대의 공식적인 학술 자료부터, 『남부군』 표절 논란이⁷⁾ 보여주듯 작가 개인이 비공식적으로 입수했던 자료에 이르기까지 나림은 남로당의 역사와 그 인

4) 위의 책, 551-562면.

5) 『세대』에 1972년 9월에 연재되기 시작하여 1977년 8월까지 일부가 게재되고, 1985년 11월에 기린원에서 전 7권으로 완간되었다. 본문의 인용과 면수는 2006년에 전 7권으로 간행된 한길사 전집본을 따른다.

6) 『남로당』은 1985년 『월간조선』에 연재되고, 1987년 청계연구소 출판국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된 바 있다. 이 글의 인용 및 면수는 2015년 기파랑에서 출판된 판본을 따른다.

7) 『지리산』의 후반부에는 이태의 수기 『남부군』에서 발췌한 내용이 다수 등장한다. 이를 둘러싼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안경환, 앞의 책, 513-518면 참조.

물 군상을 복원하는 데 애정을 기울였다. 나림의 대표작으로 불리는 『관부연락선』의 유태립, 『지리산』의 하준규나 박태영, 『남로당』의 박갑동 등은 남로당원이거나 파르티잔이 된 공산주의자들이며, 작가는 이들의 삶을 통해 남로당의 탄생 및 그 약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이에 『지리산』이 발표되던 시기에 이미 “빨갱이를 주인공으로 한 용공소설 혹은 ‘고도의 전략적 반공소설’이라는 상반된 반응”이⁸⁾ 동시에 제출되기도 했던 것이다. 공산당의 정치행위가 합법적 공개활동에서 비합법적 지하활동으로 옮겨가던 시기, 즉 반공주의가 단순한 정치적 선택지가 아니라 ‘국민의 자격’으로 표명되던 시기에 대한민국 영토 내에 존재했던 남로당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작가의 정치적 입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그는 왜 남로당 이야기를 우회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을까.

물론 앞서 「추풍사」의 인용 문구에서 보았듯 나림은 자신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며, 도리어 공산주의의 실상을 내부에서부터 비판하는 방향으로 반공주의를 설화해왔다고 주장한다. ‘내 나림대로의 공산주의’란 아마도 이러한 작업방식을 의식한 발언일 것이다. 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그의 남로당 관련 저작들은 공산주의의 약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공산주의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 등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분명 공산주의에 반(反)하는 언급들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공산주의를 비난하기 위해 공산주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글을 써온 것일까. 그러나 이 경우 앞서 열거된 공산주의자들의 삶에 대한 연민은 물론 그들의 외로운 투쟁에 대한 경외심까지 느껴지는 서술의 태도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이에 대하여 남로당이라는 정치적 실체나 공산주의라는 이념과는 별도로, 자기 신념을 지키는 인간 자체에 대한 휴머니즘을 담고 있다는 기존의 시각을 참고해보는 것도 좋겠다.⁹⁾ 허나 이 경우

8) 박윤규, 「나는 빨치산이었다」, 『월간조선』15권6호, 조선일보사, 1994, 160면.(정미진, 「공산주의자, 반공주의자 혹은 휴머니스트: 이병주 사상 재론」, 『배달말』63, 2018.12, 481면에서 재인용.)

에도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품고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연민과 경외심을 주목하고 있음에도 정작 그 인간을 정치적 맥락에서 분리하여 다루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구심, 즉 대상의 임의적인 탈-정치화라는 문제가 남는다. 아울러 그의 ‘반-공산주의’적 서술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일정한 태도, 즉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과 공산당, 공산주의자와 공산당원을 애써 분리하려 하는 서술적 태도 역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만일 공산주의와 반공주의라는, 양립할 수 없는 태도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바라본다면 이병주의 남로당 서사에 대한 해석은 양 단 간 어느 한 편만을 취하거나 혹은 양비론의 입장에서의 중도주의라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즉 둘 중 하나를 취하거나 혹은 제3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고, 이병주 문학에 대한 분석은 주로 후자의 견해를 선택해왔다. 이른바 ‘회색의 사상’¹⁰⁾ 불리는, 좌우 이념 모두에 거리를 두는

9) 「내 마음은 돌이 아니다」(1975), 「추풍사」를 비롯하여 공산주의를 제재로 한 대부분의 작품에서 작가는 화자 혹은 등장인물을 통해 「나는 공산당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가령, 서은주는 「한때 좌익교사로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스스로는 누누이 반공주의자임을 천명했다」는 사실에서 「이중삼중의 내부 검열을 체화하고 있는 세대의 글쓰기」(166면)라는 점을 강조한다(서은주, 「소환되는 역사와 혁명의 기억-최원훈과 이병주의 소설을 중심으로」, 『상허학보』20, 2010, 135-174면.). 반면 정미진은 반공주의자라는 언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적시하면서도 이것이 「공산주의 혹은 반공주의에 대한 확고한 논변이 아니」(480면)며,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명확히 밝히면서도 반공주의자라 표명하지도 않는다」는 해석하에, 이병주 문학이 특정 사상이 아닌 「반인간적인 것에 대한 강한 거부 내지는 반발」(480면)이며 이에 이념에 희생된 이들의 기억을 서사화하는 「휴머니즘의 실천 방식」(480면)임을 논증한다(정미진, 앞의 논문, 469-491면.)

10) 이병주에게서 ‘회색의 심상’이란 양자택일이 요구되는 정치적 국면에 있어서 어떤 쪽으로도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함과 연관하여 사용하곤 한다. 가령, 『지리산』에서 학병을 거부하고 지리산으로 가자는 박태영의 제안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이규가 ‘회색의 군상’으로 표현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실제로 학병에 지원한 이후 작가 이병주가 일본군의 ‘노예이자 용병’이 되었다는 자백을 했다는 점을 들어 『지리산』의 이규는 작가 이병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로 간주되곤 한다. 이에 이병주 문학의 분석에 있어서 ‘회색의 사상’이란 냉전기에 이르러 흑백 혹은 좌우의 이분법을 강요하는 세상에서 스페인 인민전선의 역사적 교훈 아래 ‘자유주의 지식인’으로 자처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작가의 태도를 규정하는 용어로 사용되거나(김윤식, 『한일 학병세대의 빛과 어둠』, 소명출판, 2012, 61-64면.; 김윤식, 「한 자유

중립적 태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조적 이분법에 대한 경계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비단 좌우 이념 모두를 부정하는 방식만이 가능한 것은 아니겠다. 공산주의에 대한 애증, 즉 애정과 증오가 공존하는 상태 역시 표면적으로는 ‘회색’의 중립성으로 발현될 수 있다. 국가적인 금기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및 지성사의 맥락에서는 공산주의를 긍정하되 이와 동시에 폭력적 통치 체제의 이데올로기로 변신한 공산주의를 부정하는 복합적 상태에 대한 이해야말로 식민지기 및 냉전기를 거친 한국의 지식인이 체화한 공산주의의 한 단면이라 할 것이다.

이병주의 글쓰기가 보여주는 공산주의(자)에 대한 연민과 증오의 양가 감정을 다루기 위해 이 글은 그의 세대적 조건과 계급적 조건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특히, 공산주의자로서는 결격 사유라 할 수 있는 ‘부르주아 지식인’라는 계급적 조건이 서사에 구현되는 양상에 주목하였다. 요컨대 이병주가 내세운 공산주의에 대한 묘사가 ‘인텔리 지식인의 관념의 산물’로서¹¹⁾ 고로 공산주의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방식으로 논의가 되어왔다면, 과연 소위 그 관념의 산물로서의 공산주의란 어떤 형식으로 발현되었던가를 묻는 것이다. 이는 이병주가 택한 제3의 방식을 논의하되 공산주의를 배제하지 않고 직접적인 연관 속에서 다룬다는 의미도 된다. 학병세대가 지식의 차원에서 접한 공산주의란 이들이 고교 시절부터 접한 이른바 ‘데.칸.쇼 철학’이나¹²⁾ 마찬가지로 여러

주의 지식인의 사상적 흐름’, 『역사의 그늘, 문학의 길』, 한길사, 2008, 98-101면.), 특정 이념을 지지하는 당파나 정파에 속하기를 꺼렸던 작가의 중립적 태도나 교조적 이념화를 경계하는 태도를 일컫는 용어로 확장되어 사용되기도 한다(이러한 경향의 분석 사례로는 이재복, 「한 휴머니스트의 사상과 역사 인식」, 『패자의 관』 해설, 바이북스, 2012, 107-121면 참조).

11) 가령, “식민지 아래서 지하당원으로서 조직활동을 해보지 않은 인간상으로서의 하준규와 박태영은 해방 이후에도 끝끝내 당의 오류만 느낄 뿐 그 존재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었다”는 전제 하에 『지리산』을 ‘반공소설’의 한 사례로 분석하는 견해(임현영, 「현대소설과 이념문제」, 『역사의 그늘, 문학의 길』, 앞의 책, 235면.), “구체적 현실의 개념화라는 이 작품의 방법론이 추상적 관념성의 과잉을 초래”하여 “객관현실의 왜곡과 변형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는 견해(정호용, 「영웅적 인물의 행로」, 위의 책, 258면.) 등을 참조해 볼 수 있다.

지적 교양의 선택지 중 하나였다. 특히 공산주의가 이론으로서 학습될 뿐 조직운동으로서의 존재감이 없었던 것은 1925년 치안유지법의 제정 이래로 가중된 공산주의·무정부주의에 대한 탄압에 이어,¹³⁾ 1930년대 중반을 거치며 군국주의 신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탓에 일본에서든 조선에서든 현실적으로 공산주의 운동이 봉쇄되고 암흑기에 접어들었던 사정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식민지 말기의 공산주의는 천황제 파시즘에 대한 저항사상이기도 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해방 후 냉전기에 이르러 공산주의가 갑작스레 불온한 사상으로 변전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이념적 투쟁의 대상이 군국주의화한 일본에서 단일국가론을 외치는 대한민국이 되었을 때 그 ‘불온함’의 의미가 바뀌었고, ‘비-국민’의 자질 또한 일제의 저항투사에서 위험한 ‘빨갱이’로 바뀌었을 뿐이다. 해방 이전에 공산주의를 습득한 세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역사적인 변전에 따라 공산주의의 위상이 덩달아 바뀌는 국면이 진행될 셈이다. 자국의 파시즘에 저항한 양심적인 일본 지식인의 전형이 공산주의와 관련되어 있으며, 학병세대는 유학의 경험이나 동료 지식인들과의 지적 교류를 통해서 그 저항의 형식을 배웠다. 요컨대 공산주의는 이들 학병세대의 경험 속에서 비단 이념의 노예만을 양산하는 혐오스럽고 불온한 사상이라 쉽게 처리될 것이 아니다. 아울러 이들 학병세대는 식민지 시기에도 부모 혹은 친족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유학을 할 수 있었던 부르주아 집안의 자손들이다. 이론으로라도 공산주의를, 아니 이론에서부터 공산주의를 개념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지점에 있다. 그러나 이들 부르주아 지식인들이

12)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어 철학을 줄여서 부르는 말로, 고교 과정에서부터 서양철학을 익히기 시작하는 일본식 교양 교육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학력 귀족’으로서 학병세대가 익힌 일본의 교양 교육 전모에 대한 설명은 김윤식, 「학병세대와 교양주의」, 『한일 학병세대의 빛과 어둠』, 앞의 책, 123-144면; 안경환, 앞의 책, 159-181면 참조.

13) 이에나가 사부로 엮음, 『근대 일본 사상사』, 연구공간 수유너머 일본근대사상팀 옮김, 소명출판, 2006, 250-251면, 358-369면.

공산주의 이론에 쉽게 매혹되었다 할지라도 그 이론을 선뜻 실천으로 옮길 수 없었던 이유 또한 같은 지점에 있다. 즉 부르주아 계급 가족의 일원이 감당해야 하는 ‘봉건제적’ 책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부르주아 지식인의 공산주의’란 어떤 이상과 현실감각을 지닌 것이며, 식민지 시기와 해방 후의 좌우 이념 대립을 거치면서 어떤 방식으로 변형되는 것인가. 이것이 나림 이병주가 쓴 『지리산』, 『남로당』 등 일련의 남로당 서사를 따라 읽으며 생각해볼 주제이다. 이하 본문의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해방 후 부역 혐의에 시달리면서도 이병주가 공산주의 서사, 특히 남로당 서사를 써내야만 했던 이유를 묻는다. 이 과정에서 해방 후 학병세대가 감당해야 했던 세간의 의혹을 살피고, 그 해법인 동시에 문제의 원천인 ‘하준수(남도부)’의 문제적 위상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이병주의 남로당 관련 저작들이 공통적으로 공산주의에 반(反)하는 형태로 발화되는 현상에 대해 살핀다. 이 현상은 일차적으로 냉전기 작가들에게 내면화된 자기 검열의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이병주의 작품에 담긴 반-공산주의적 발화는 비단 전후 냉전기의 정치적 조건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서술 방향은 교조화된 공산당에 대한 비판과 혐오를 동반하면서도 정작 공산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양면성을 ‘비-공산주의’의 영역이라 규정하고, 그 성격을 하준수가 조직한 보광당의 재현 양상과 관련하여 다룬다. 마지막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동경과 경계가 착종된 서사를 비전향의 지조에 대한 옹호 및 세속적인 기회주의에 대한 경계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이는 당초 공산주의를 천황제 파시즘에 대한 투쟁수단으로 접했다는 세대적 특성이나, 가족 부양에의 책임을 짊어진 ‘부르주아 엘리트’라는 태생적이며 계급적인 제약의 특성을 감안하여 살필 때 그 역사적 구체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상의 논의를 학병세대 일반의 보편적 자질이라 명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병주의 글쓰기는, 단 한 번도 조국을 가져본 일이 없는 세대가 관념적으로

꿈꾸었던 공산주의가 정치조직을 통해 국가적 실체로 구현되기 시작했을 때 생겨나는 복합적 감정의 일단을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가 된다. 아울러 그간 결함이나 결핍의 자질로만 언급되었던 ‘부르주아 지식인’이라는 요인이 식민지 청년의 혁명적 열정으로서의 공산주의 사상과 만났을 때 빚어지는 변형과 개조의 양상 또한 살펴보게 될 것이다.

2. 이중 부역의 낙인과 ‘하준수/남도부’의 상징성

학병세대는¹⁴⁾ 식민지 시기 전문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았던 인텔리 집단이었던 만큼, 해방 후에는 정치, 경제, 국방, 교육, 종교 등 대한민국 사회의 각 분야의 중추가 되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사회적 경력과는 별개로, 오히려 세속적인 성공이 따를수록 이들에게는 여전히 해명해야 몇 겹의 과제가 남아 있었다. 하나는 일본군에 부역을 했다는 세간의 시선이며, 다른 하나는 대거 공산주의에 경도되었다는 의혹이다. ‘1.20 동지회’가¹⁵⁾ 펴낸 『학병사기』(1987)의 서문은 그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이 서문의 화자는 조선인으로서 전쟁에 동원된다는 것이 ‘적국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나 다름없음을 알고 있었으나 강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과 더불어, 그럼에도 오늘날 ‘왜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는지’ 되묻는 사가(史家)가 있을 것이기에 학병의 기억을 사기로 엮는다고¹⁶⁾ 밝히고 있다. 이병주 또한 이러한 세간의 인식을 느끼고 곤혹스러워했음이 확인

14) 학병세대는 “위로 1917년생부터 아래로 1923년생까지 1920년을 전후해 약 6-7년에 걸쳐서 태어난 이들”로서, “정확하게 말하면, 1923년 12월 1일 이전에 출생한 학생들”로 정의된다.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학병 세대와 한국 우익의 기원』, 2017, 20면.)

15) ‘1.20 학병동지회’는 학병 소집일인 1944년 1월 20일을 기려 1962년 1월 20일에 조직되었다. 이들의 세대적 자화상 만들기 작업은 『청춘만장』(1973)에서 『1.20 學兵史記』1-4(1978-1989)로 이어졌다.

16) 1.20 동지회, 「서문」, 『1.20學兵史記』1, 1987, 2-3면.

된다.

不信을 받고 있는 世代

(…생략) 歷史의 고깃길 마다에서 항상 가혹한 시련에 부딪혀야 했던 우리의 世代가 同情을 사기는커녕 가혹한 非難의 對象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이지만 嚴然한 事實인 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¹⁷⁾

나림은 『학병사기』에 기고한 글에서, 목숨을 담보로 징집되었던 불행한 체험이 도리어 ‘세대적 불신’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정을 안타까워했다. 특히 그러한 비난의 수위가 한일협정 시국에서 치열한 반대 투쟁을 벌였던 젊은 청년층의 공세 속에서 한층 높아져서, “개인의 출세주의 이기근성(利己根性)에 의한 야욕”으로¹⁸⁾ 일컬어지기에 이르렀다고 탄식하고 있다.

『관부연락선』은 이렇듯 세간으로부터 의혹을 받는 학병세대를 위한 첫 번째 대답이었다. 이 소설에서 나림은 일부의 ‘탈출 학병’이 아니라 학병 세대의 대다수를 이루는 ‘비-탈출 학병’의¹⁹⁾ 경험을 이야기한다. 장준하, 김준엽 등 일본군의 병영을 탈출한 그룹이 존재하는 한 그 나머지를 향해 ‘왜 탈출하지 않았는가’를 묻는 세간의 시선은 그가 감당해야 할 핵심적인

17) 이병주, 「다시 인생을 출발하는 기백을 갖자-1,20동지회 회보에서」(1975), 『1,20學兵史記』3, 671면.

18) 위의 글, 673면.

19) ‘비-탈출학병’이라는 용어는 기존 연구에서 ‘잔류학병’이라는 용어로 설명된 바 있다. ‘잔류’라는 어휘에는 ‘뒤에 남은 나머지’라는 판단이 담겨 있으며, 이에 용어 자체가 일본군의 병영을 벗어나지 못했던 학병들에게 주어졌던 사회적 압력을 은연중 드러낸다고도 할 수 있겠다. 본 원고에 사용한 ‘비-탈출학병’이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중립적인 용어로 기존 용어를 대체하고자 선택한 것임을 밝혀둔다. 이상 학병세대와 6.3세대의 갈등에 대한 논의로는 정주아, 「학병세대와 군인정치의 시대 그리고 법적 정의-이병주 문학에 나타난 원한과 범의 문제」(『철학·사상·문화』35, 2021, 453-483면.) 참조.

문제였다. 이 소설에서 그는 한편으로는 ‘노예이자 용병’으로서의 자기 환멸과 죄책감을 드러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탈출을 시도하다가 발각되어 미처버린 동지의 일화를 통해 탈출과 직결된 죽음의 공포를 그려낸다. 아울러 학병 집단에 존재했던 공산주의자들의 사례를 통해 학병 내부에서도 사상투쟁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나, 해방 직후 상하이에서 무분별하게 규모를 키운 ‘광복군’의 실태를 밝히면서 애국/매국의 상징성 너머에 존재하는 사실적인 후일담을 털어놓고 있다.

그러나 학병세대가 처했던 곤경에 대해 소극적으로 변호를 할 수 있을 지언정, 한일협정 재개와 더불어 반일의식이 충천한 젊은 세대를 향해 학병세대의 저항이나 해방 후의 정치적 역할을 놓고 반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자 시국에 뛰어들던 순간에 벌어졌던 어떤 사건 때문이다. 해방 직후 학병 집단은 ‘학병동맹’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자신들이 징집된 날짜인 1월 20일을 ‘학병의 날’로 정했다. 국가 건설이 최우선의 과제로 주어졌을 때, 말 그대로 ‘생전 처음’으로 모국을 가질 수 있게 된 이 불행한 청년 세대가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귀향길에 나서는 학병들의 식사나 여비 마련 등을 주선하고, 일본 경찰의 철수를 압박하고 보안대를 조직하는 등 해방된 서울의 불안정한 치안을 유지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그러나 지도부가 미군정에 의해 좌익 단체로 지목되어 강제로 해산되는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 이른바 ‘학병동맹 사건’이 발생한다.²⁰⁾ 최초의 학병조직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와해되었다.²¹⁾ 이들은 모두 ‘단체 내부에 있었던 극히 소수의 입장

20) 학병동맹사건을 상세하게 언급한 논문으로는 이혜령, 「해방(기):총 든 청년의 나날들」, 『상허학보』27, 2009.10, 22-33면 참고.

21) 이 조직이 재건된 것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인 1962년 1월 20일 ‘1.20 동지회’에 이르러서이다. 이들이 기획하여 펴낸 학병세대 총서라 할 수 있는 『1.20 학병사기』에는 학병동맹사건에 대한 증언들이 일부 실려 있다. 학병동맹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안동준, 「학병동맹 및 나와 학병단」, 『1.20 학병사기』3, 1.20 학병사기간행위원회, 483-493면; 허상도, 「치안

이 당국에 의해 과대평가된 것'이라 증언하고 있지만, 해방 직후에 벌어진 이 사건이 학병세대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선입견을 형성한 것은 물론이다. 학병들이 좌익에 경사되어 있다는 시각은 이병주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살폈듯 이병주는 해방 직후 좌익에 부역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이 혐의는 훗날 그가 논설로 필화를 입는 상황으로도 연결된다. 그럼에도 이병주의 『관부연락선』에는 그가 경험한 학병동맹 사건이나, 단체 내부에 존재했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언급은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해방 후 유대림과 학병 동지들이 매년 함께 모이곤 하던 친목 모임에 우연히 섞여든 공산주의자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는 해프닝이 생겼다는 정도로만 취급된다. 요컨대 해방기 좌우 이념 대립은 다만 교사로서 중립적 역할을 유지하는 일의 어려움, 부역을 요구당할 때의 곤혹스러움 등 작가 개인의 체험 차원에서만 이야기된다. 요컨대 '학병과 공산주의'라는 과제는 금단의 영역으로 남은 것이다.

『지리산』은 해방 이후 학병세대를 구속했던 역사적 낙인이라 할 두 가지 부역의 혐의, 즉 일제 학병 지원과 공산주의로의 경사라는 세간의 의혹에 정면으로 맞서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 핵심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하준수(河準洙, 1921~55)라는, 일제 말기 학병거부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왜 학병세대에 따라붙곤 하는 의혹들을 풀어나가는 실마리가 되는 것일까. 주지하듯 하준수는 일제 말기 학병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경남 함양 지역 부농의 아들로 태어나 진주중학 3학년 때에 일본인 교사를 폭행하고 퇴학을 당했으며, 일본에서 유학하던 도중 지원병제가 시행되자 입산을 선택하고 학병기피자들을 규합하여 지리산에서 '보광당(普光黨)'을 조직하여 저항했다. 동시에 그는 해방 이후 조선공산당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인물이다. 남도부(南到釜), 즉 조선노동당 조선인민유격대 제3병대 부사령관으로서 그는 인민군도 퇴각한 남한에 고립되어 '남도

과 학병·학병동맹 전말], 『1.20 학병사기』3, 1.20 학병사기간행위원회, 461~465면 등을 참고.

부 부대'를 이끌며 저항하다 1954년 초에 체포되고 1955년 8월 처형 당시에도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는 인물이다.²²⁾ 일제에 저항한 학병인 동시에 충실한 공산주의자, 즉 하준수라는 이름과 남도부라는 이름은 동일인을 가리킨다. 일본군 복무 및 좌익에의 경사라는, 학병세대를 둘러싼 세간의 이념적 의혹 문제를 다루려 할 때, 하준수이자 남도부라는 두 이름을 지닌 이 인물은 일제강점기 학병세대의 저항정신을 증언한다는 점에서 부역 문제의 해결점이 되지만 그 저항의 정치적 선택이 공산주의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부역 문제의 원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남로당을 제재로 한 소설을 써내려 할 때 작가에게는 수많은 선택지가 존재했을 것이다. 많은 가능성 중에 왜 하필 지리산과 하준수를 선택했으며, 왜 하필 하준수의 보광당 투쟁 시절과 그의 사상적 선택을 재조명하는 구도를 취했는지를 살피는 것은 중요해 보인다. 이런 해명을 통해서야 비로소 일제 말기 투쟁사 속에 학병세대의 역할을 기입하고 아울러 해방 이후 공산주의와의 관련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는 『지리산』의 문학사적 의의와 작가의 세대적 체험이 서로 맞물리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하준수를 비롯하여 이현상, 박헌영 등 이 소설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의 행적이나 관련 사건의 인과 관계는 역사적 실재에 해당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허구 서사를 써내기란 매우 어려운 노릇이다. 이에 작가는 실존 인물 하준수를 모델로 삼아 하준규라는 인물을 등장시키지만 그 행보는 대부분 역사적 고증을 따라 처리한다. 대신 작가는 학병기피자로서 입산하여 공산주의를 선택하기까지 하준수(하준규)와 유사한 행보를 밟으면서도, 하준수의 내면을 대신하여 보여주기에 적절한 인물인 박태영을

22) 『지리산』의 작중 인물인 하준규는 하준수(河準洙, 일명 남도부(南到釜))를 모델로 한 것이다. 남도부의 한자 표기인 '南到釜'는 '南道釜'로도 통용되고 있다. 남도부 부대원이었던 안병렬에 따르면 옳은 표기는 '南到釜'이며, 이는 '남으로 부산에 이른다'는 뜻이다. 부산의 점령을 해방 전쟁의 최종 승리라 믿었던 빨치산 부대 사령관으로서 하준수의 바람을 담았다고 한다. (임경석, 「산에서 쓴 편지-남도부 부대 정치위원 안병렬이 남긴 생애 마지막 기록」, 『역사비평』 76, 2006.8, 318면.)

주인공으로 삼는다.²³⁾ 『지리산』의 전체 서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 박태영의 역할은 명료하다. 소설의 전반부에서 박태영은 식민지 통치 및 교육 체제에 불만을 품고 방황했던 학병세대의 내면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는다. 학병지원을 피해 입산한 이후에는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두령 하준규의 영웅적인 면모와 보광당의 역사적 의미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목격자로 기능한다. 소설의 후반부에서 박태영은 남로당원이 되어 해방 직후 남로당의 역사적 선택과 행보를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공산당에 실망한 그는 끝내 당적을 포기하고 자신의 경솔했던 이념적 선택에 책임을 지겠다고 '당원이 아닌 공산주의자'이자 최후의 빨치산으로서 죽는다. 요컨대 박태영은 하준수의 삶을 모사하되 역사적 인물인 하준수에게 차마 맡길 수 없었던 플롯, 즉 공산당에 환멸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선택에 끝까지 책임을 지고자 죽음에 이르렀다는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투입된 인물이다.

아울러 하준수가 써냈던 「학병거부자의 수기-신판 임격정」(『신천지』, 1946.4-6)은 보광당에 참여한 박태영의 목격담을 통해 다시 한번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작가는 해방 직후 『신천지』에 3회에 걸쳐 연재되었던 하준수의 수기를 활용하여 보광당의 생활사를 구성한다. 신문자료나 학술서, 수기 등을 직접 인용하여 집필하곤 하는 이병주의 창작 스타일을 보여주듯, 식량 부족으로 화전을 일구고, 직제를 갖추어 군사훈련을 실행하는 등 하준수의 수기에 등장하는 일화들은 『지리산』에 대부분 그대로 반영되었다.²⁴⁾ 남부군 인민유격대 부사령관 남도부, 한반도 냉전의 역사

23) 작가는 인터뷰를 통해 하준수를 모델로 하준규라는 인물을 등장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박태영은 박범수라는 실존 인물을 모델로 삼았다고 말한 바 있다(『중앙일보』, 1985.11.19. 조남현, 『6.25대하소설 연구』, 서정시학, 2021, 185면 참고). 실존 인물의 삶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행적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은 하준수보다는 허구적 변형의 폭이 컸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실존 인물을 모델로 했다는 사실과는 별도로, 이 논문은 허구화된 인물 및 역할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24) 이병주는 작중 주제와 관련된 신문기사, 자서전(평전), 학술논문, 재판기록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소설 집필에 단순히 참고하는 차원을 넘어 직접 인용하여 소설 본문에 삽입하곤 한다. 『지리산』의 경우 하준수의 수기 「학병거부자의 수기-신판 임격정」(『신천지』, 1946.4-6)을

속에서 지워진 그 이름은 『지리산』을 통해 일제의 학병 징집에 저항했던 청년 하준수와 연결되면서 비로소 역사 속에서 그 삶이 재론될 여지를 얻는다. 이 작업이 학병세대의 세대적 정체성 및 이중 부역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은 물론이다. 다음 장에서는 하준수와 보광당의 일화가 작중에 수용되는 구체적 양상, 즉 학병세대가 공산주의 및 공산당과 연결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 보광당 되살리기와 ‘비(非)-공산주의’의 실험

『지리산』은 해방 이전 학병기피자들의 입산(入山)과 해방 이후 남로당 유격대의 입산이라는 두 차례의 지리산 입산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입산기에서는 학병 징집을 앞두고 지리산으로 도피하는 진주 중학 동창인 박태영과 이규, 그들의 중학 선배이자 기피자 집단의 두령인 하준규가 주요 인물이다. 군청 말단 서기의 아들인 태영은 가난한 집안 형편과 일본의 압제에 대한 반발심으로 중학교 졸업을 끝으로 제도권 교육을 더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일본에서 검정고시를 치르고 노동을 하던 그는 학병으로 끌려갈 위기에 처하자 징병을 피해, 귀국길에 만난 중학 선배 하준규와 함께 지리산으로 들어간다. 한편, 비록 몰락해 가는 형편이라고 하나 조부 때 “8형제 8천 석의 집안”으로 불렸던 토착 지주의 자손인 이규는 중학을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하여 경도(京都)3고를 거쳐 동경제대 학생이 된다. 연령을 핑계로 징병제를 모면했던 이규는 징병 명령이 확대 시행되자 고민하다가 얼떨결에 지리산에 합류하게 된다. 당초 하준규와 박태영 등 소수로 시작된 기피자들의 은거 생활은 덕

비롯하여 김남식의 학술서 『남로당 연구1』(돌베개, 1984), 이태의 수기 『남부군』(두레출판사, 1988) 등이 주요 참고도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리산』과 이들 텍스트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남현, 앞의 책, 215-267면 참고.

유산 지리산 패관산 등을 거치며 하준규를 두령으로 하는 ‘보광당’이라는 조직으로 발전한다. 유사한 성격의 다른 기피자 무리와 병합되면서 보광당 조직은 300명까지 증가한다. 기피자들을 체포하려는 경찰과의 대결을 견디며 보광당은 무사히 1945년 8월의 해방을 맞아 자신들의 자긍심을 ‘화원(花園)의 사상’이라 부르며 해산한다.

두 번째 입산기는 해방 이후 공산당 활동이 지하화되자 빨치산 유격대에 합류하여 다시금 지리산으로 입산하는 박태영의 이야기이다. 해방 이후 하준규와 박태영은 이현상의 강권으로 공산당에 참여하지만 매사 소련의 눈치를 살피고 당의 위계와 규율을 앞세우며 통제하려 드는 조선공산당에 염증을 느낀다. 이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공산당과 거리를 두었던 이규는 후원자인 하영근의 도움으로 프랑스로 유학을 떠난다. 한반도의 신탁통치안을 두고 찬탁으로 입장을 번복한 당의 결정에 반발하던 태영은 당에서 제명을 당해 당적 없는 공산주의자 신세가 된다. 공산당이 지하화되면서 박태영은 이현상의 유격부대에 합류한다. 북의 지원을 기다리며 생존을 유지하던 지리산 파르티잔들은 휴전 협정이 마무리될 때까지도 철저히 외면을 받고, 경찰대의 토벌작전에 의해 붕괴된다. 하준규를 비롯한 옛 보광당 동지들이 모두 죽고, 박태영은 잔여 빨치산들을 자수시킨 뒤 1955년 8월 지리산의 마지막 파르티잔으로서 눈을 감는다.

대하소설의 서사적 밀도가 균일하게 유지되기는 어렵겠으나, 『지리산』은 특히 등장인물への 집중도나 허구적 설정의 밀도 면에서 볼 때 전후반의 편차가 큰 작품이다. 두 차례의 입산기를 중심으로 소설의 전·후반부를 나누어 비교해보는 경우 그 차이는 쉽게 확인된다. 소설의 전반부는 이규와 박태영의 중학 생활, 가족 이야기, 일본 유학 생활 등 두 인물의 성장 과정에 따라 진행된다. 학병지원을 거부한 박태영과 하준규, 그리고 이규가 합류한 첫 번째 입산기는 낯설고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며 우정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청년들의 또 다른 성장의 과정을 그린다. 이러한 전반부의 서사가 갖는 구체성과 생동감에 비할 때, 공산당 입당 이후 박태

영의 방황과 환멸을 그리는 소설의 후반부는 경직되고 단조로운 논평으로 일관되어 있다. 전반부의 주요 인물이자 작가가 ‘자신의 분신’이라²⁵⁾ 지목한 바 있었던 인물인 이규는 후반부에서는 유학을 떠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 아예 서사에 등장하지 않고, 하준규 또한 간간이 소식이 들려올 뿐이다. 이에 전반부의 주요 인물 중 박태영만 남은 상태로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그나마 두 번째 입산기에 이르면 이태의 수기 『남부군』이 인용되는 분량이 증가하면서 박태영이 주인공이라 이르기도 무색한 상태가 된다.²⁶⁾

이렇듯 『지리산』의 전후반 서사가 보여주는 밀도의 편차는 사실상 이 소설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냐를 보여준다. 바로 유년시절과 첫 번째 지리산 입산기인 보광당의 생활상을 서술한 대목이다. 이 부분은 아직은 미숙한 주인공들이 스스로 삶을 고민하고 설계해나가는 과정이 갖는 생동감, 즉 미완성 상태에서 기인하는 불안과 방황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성장소설 특유의 생동감을 갖는다. 식민지 말의 억압적인 통치 체제 안에서 주체적인 삶의 방식을 모색하고 주변 사회와의 갈등을 교훈으로 받아들이며 끝내 자족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꿈을 실현하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지리산』에 담긴 보광당의 에피소드는 이념적으로 완결된 유토피아에 대한 기억이다. 일본군에 자원입대하라는 국가의 명령을 거스르고 산속으로 도피하기를 선택한 일군의 조선인 청년들이 있다. 장차 ‘비국민’으로 간주하는 것은 물론 징역이나 징용을 부과하겠다는²⁷⁾ 당국의 으름장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용감한 청년들이다. 그러나

25) 『중앙일보』, 1985.11.19. (위의 책, 같은 면)

26) 이병주의 『지리산』에 인용된 이태의 수기 『남부군』을 둘러싼 표절 논쟁의 맥락에 대해서는 안경환, 앞의 책, 513-519면; 실제 인용된 내용에 상세한 대조 작업 및 논평에 대해서는 조남현, 앞의 책, 228-267면 참고.

27) 장덕상, 『일제강점기 말 조선 학도병의 자화상』, 정다운 역, 선인, 2016, 88면.

이 시선을 조금만 바꾸어 생각해본다면 이 결정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명을 명분 없는 전쟁에 내놓을 수 없다는, 지극히 이기적이며 냉정한 선택이라 할 수 있겠다.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애꿎은 총알받이로 강제 동원되어야 하는 정황임을 감안하면, 일본에 일부러 협력하려는 것이 아닌 이상 누구든 방법만 있다면 징병을 피하고자 했을 것이다.²⁸⁾ 다만 이런 바람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 집안의 불행을 내 한 몸으로 대신하고자”²⁹⁾ 지원했다는 장준하의 술회처럼, 대부분의 조선 청년들은 비단 자신에게 주어진 위협만큼이나 가족이나 가문을 볼모로 한 괴롭힘이나 미래의 양값음을 우려하여 학병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병지원을 거부하고 홀로 산속으로 은신한다는 것은 뒤에 남겨질 자들의 안위와 미래를 담보로 한 선택이 되겠기 때문이다.³⁰⁾

그럼에도 이들의 결단은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선택이 되었다. 그것은 완결된 승리의 서사이다. 지리산에 입산하는 박태영의 대의명분은 뚜렷했다. 일제의 전쟁에 ‘노예이자 용병’으로 끌려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준규를 두령으로 한 공동체는 내부의 갈등을 겪으며 필요에 따라 자생적인 규율과 관습을 갖추고 질서정연한 대규모 조직체로 거듭난다. 경찰에 체포될 위험과 산 생활의 궁핍함을 견뎌내야 하지만, 이들에게는 굴욕적인 정책에 협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가 있다. 자발적 군사훈련과 일상 불란한 작전 수행을 통해 일정을 무력화시키며 세간에서 영웅으로 추앙 받는다. 일 년 반 남짓한 이들의 공동체 생활은 일본의 패전과 조국의 광

28) 학도지원병제 지원 초반에 순탄한 모병을 기대하던 일본 당국이 사실상 강제 징집으로 돌아서기까지의 과정은 김건우, 「운명과 원한-조선인 학병의 세대의식과 국가」, 『서강인문논총』 52, 2018, 106-107면 참조.

29) 장준하, 『돌베개』(1971), 세계사, 2007, 17면.

30) 작중에서 하준규 또한 또래들이 부딪혔던 유사한 어려움을 언급한 바 있다. “나 하나 희생하면 집안이 편해지고 마을이 평온하게 될 텐데 버티면 무엇하나 싶은 생각이 들 만도 하지. 자기 하나 희생시키기 싫어서 주위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자로 보일까봐 겁도 나고 말야.”(『지리산』1, 105면.)

복이라는 낭보와 함께 종료된다. 이보다 더 훌륭한 전개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결말이다. 하준규와 박태영의 선택이 옳은 것이었음을 역사가 보증하는 셈이다. 완결된 유토피아로서의 보광당과 ‘두령’ 하준규의 성공은 이로써 학병세대 항전사의 일부로 편입된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이기적 선택이 대의와 명분에 거스름이 없는 데다 나아가 세인의 적극적 지지와 존경으로까지 이어지기란 쉽지 않다. 영웅이 탄생하는 과정은 대개 정반대의 논리, 즉 대의를 위해 생명을 바친다는 논리를 따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학병세대가 놓였던 상황의 아이러니함이 새삼 되살아난다. 실제로 작가 이병주를 비롯하여 학병에 지원한 청년들은 생명을 담보로 하여 전장에 투입되고도 훗날 부역 자라는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것이다. 이에 『지리산』 전반부를 채우는 학병거부자들의 보광당 이야기는 역사에 거리낄 것이 없는,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기개와 긍지라는 건강한 기운이 넘쳐 흐른다. 이렇듯 완결된 유토피아에 대한 예찬이 강렬할수록 현실에서 마주치는 공산당의 활동이나 해방 후 지리산 투쟁기가 상대적으로 암울하고 불완전한 것이 될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지리산』의 후반부를 채우는 파르티잔의 입산 생활이 남한 정부뿐만 아니라 끝내 북한의 공산당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채 비참한 결말을 맞았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적국을 향해 복무하지 않겠다는 지조를 고집하는 청년 중 누구도 장차 고국으로부터 자신이 철저히 버림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는 이는 없다. 이에 청년들의 순수하고 건강한 결기를 그린 첫 번째의 지리산 입산기는 파르티잔들의 죽음을 그린 두 번째의 지리산 입산기와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학병세대가 감당해야 했던 역사적 비극의 강도를 높이는 데에 일조하게 되는 것이다.

완결된 유토피아의 형상으로서 보광당은 현실화된 공산주의 정치체인 남로당의 거울이 되어 『지리산』의 서사 전반을 지배한다. 보광당을 해산하고 남로당에 입당한 하준규, 박태영, 노동식 등은 저마다 다른 임무를

말아 흩어지지만, 곧 남로당 내부의 권력투쟁과 교조적인 사고방식에 환멸을 느낀다. 이들 사이의 관계는 남로당이 아니라 보광당 동지들 간의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된다. 아래의 인용은 박태영이 당원 자격을 잃더라도 중앙당을 떠나 부산 노동조합에서 일하게 해달라며 노동식에게 간청하는 부분이다. 공산당원으로서 태영의 경력을 걱정하던 노동식은 ‘우리는 공산당원이기에 앞서 보광당원’이라며, 최종 결정을 하준규에게 맡기자고 태영을 설득한다. 이후에도 박태영이나 노동식은 ‘하 두령’이 당을 떠나면 함께 떠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태영 씨, 그럼 이렇게 합시다. 고향에 돌아가면 하 두령을 만날 것 아닙니까? 하 두령과 의논해서 하 두령이 동의한다면 태영 씨의 뜻대로 하겠소. 우리는 공산당의 당원이기에 앞서 보광당 당원이 아니오? 그러니 이 문제는 하 두령의 의사에 맡기도록 합시다.” (...) “누가 들으면 분파 행동을 한다고 오해하지 않겠소?” “우리에겐 보광당이 모체이고 공산당이 분파 아닙니까?”³¹⁾

작가는 보광당 옛동지들의 결속을 부각시키기 위해 실제 역사와는 다른 진술도 마다하지 않는다. 작중에서 하준규는 1948년 해주에서 열린 공산당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남로당이 아닌 ‘학병거부동맹’ 소속으로 남한 지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중 한 사람으로 선발된다.³²⁾ 그러나 실제 해주 회의에 참석한 하준수는 대의원으로 선출되지 못했다.³³⁾ 이렇듯 역사에 허구를 가미하는 이유는 물론 ‘학병거부동맹 대표로서의 하준수’라

31) 『지리산』4, 206면.

32) “『하준규는 이 회의에서, 남한 지역에 할당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6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혔다. 그런데 하준규의 단체 소속은 남로당이 아니고 학병거부동맹이었다.”(『지리산』5, 342면.)

33) 이병주의 『지리산』과 김남식의 『남로당 연구』를 비교하여 살핀 조남현 교수는, 작가 이병주가 김남식의 연구결과를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준규가 큰 인물임을 강조하기 위해 연구서의 내용을 외면했다는 쪽에 무게를 둔다(조남현, 앞의 책, 172면.).

는 인물의 역사적 위상을 완성하는 것이겠다. 보광당의 서사적 지배력은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확인된다. 이태의 수기와 김남국의 남로당 연구 등을 바탕으로 역사적·실증적 기록을 나열하는 것으로 채워지던 소설 후반부는 최종 부분 즉, 이현상 부대가 와해된 이후 지리산에 남은 박태영이 산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부분에 와서야 다시 이야기로 채워지기 시작한다. 경찰과 교전을 거듭하는 동안 대원들을 거의 잃고 남은 자들마저 하산시킨 박태영은 보광당의 옛터로 돌아와 잠시 행복을 맛보다 죽음을 맞는다.

요컨대 『지리산』은 순수한 청년들이 모여 보광당을 조직하는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보광당의 환영을 좇으며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그 최후의 인물이 옛 보광당의 터에서 죽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작중에서 ‘화원(花園)’ 혹은 ‘작은 공화국’으로 표현되는 보광당의 집단생활이 실제 역사적으로 어떠했느냐는 이 대목에서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냉전사 속에서 묻혀 버릴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작가 이병주가 『지리산』을 통해 ‘지나간 미래’이자 완결된 유토피아로서 되살려 낸다는 데에 있다. 작중에서 그려내는 이 ‘작은 공화국’은 속세에서의 계급이나 성별에 의한 차별이 없는, 모두가 골고루 행복했던 시절로 그려진다.

그리고 이 ‘작은 공화국’으로서의 보광당은 해방 후 공산당이 만들고자 했던 이상적 공산국가와 변별되는, 자생적 공동체주의의 실험현장처럼 보인다. 인텔리, 농부, 노동자 등을 아우르는 구성원들은 기존의 신분과 재산, 성별 등에 상관없이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집행부의 판단과 결정을 따른다. 공동 경작과 채집을 통해 얻은 생산물은 공동으로 관리하며 분배한다. 집행부인 ‘두령’과 ‘도령’들의 결합체는 끈끈한 동지적 연대로 유지되며, 구성원들은 조직을 향한 믿음과 충성을 토대로 집행부의 결정에 전적으로 순종한다. 이러한 공동체 운영 방식은 보광당 해체 이후 등장한 공산당의 당 조직과 대조를 이룬다. 토론과 합의를 통해 내부 규율과 조직의 목적을 만들어 나가는 체험은 공동체주의의 원형이 되고, 이후

공산당의 경직성과 권위적 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박태영의 회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보광당의 자생적인 공동체주의는 공산주의를 연상시키지만 당대의 정치 체제로 실현된 공산주의와는 변별된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 ‘공산주의 이되 당대의 공산주의는 아닌(非)’ 상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비-공산주의’의 재현이라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당대에 실현되었던 남로당 중심의 공산주의는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반(反)-공산주의(반공주의)’라고도 일컬을 수 없는 공산주의가 관념적·이상적으로 재현된 형상인 것이다. 제국 권력에 대한 저항 의지로 집결한 청년들이 만든 순수한 정치공동체는 지속적으로 남로당에게 노출되고 ‘변질’될 위협을 받는 것으로 그려진다. “언제든 폭발하려고만 하는 다이내마이트”³⁴⁾, “그 청년은 아무래도 철저한 공산주의자가 될 소질이 있”다는³⁵⁾ 등 박태영에게는 공산주의자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염려가 유년시절부터 이미 비극의 예언인양 따라 다녔다. 아울러 남로당 지도자 이현상이 수배를 피해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보광당에 숨어들었다는 허구적 설정은 보광당과 남로당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장치가 된다. 이러한 설정이 실제 역사적 기록과는 달리 하준수의 남로당 입당을 수동적인 선택으로 만들고, 그리하여 하준수 또는 보광당의 학병거부자들이 좌익에 부여했다는 역사적 낙인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현상은 보광당의 자족적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으로서의 악이자, 실낙원으로부터 청년들을 세속적인 정치투쟁의 장으로 이끄는 유혹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박태영과 이규를 유년시절부터 후원하고 보호했던 지역 유지 하영근은 두 청년이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향한 공산주의자인 권찬혁을 보광당으로 들여 보낸다.

34) 『지리산』1, 118면.

35) 『지리산』2, 315면.

“내가 이곳을 찾은 것은 보광당 전체를 위하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박군이 목표였다. 하영근 군은 박군이 공산주의자가 될까봐 겁내고 있다. 공산주의란, 이상하게 빠져들기 시작하면 일종의 고질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 하영근 군은 그걸 걱정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나선 거다. 내가 절대로 박태영 군을 공산당으로 만들진 않겠다고…….”³⁶⁾

이로써 보광당은 청년들을 공산당에 합류시키려는 이현상과 공산당 가입을 막으려는 권찬혁, 남로당 거물과 전향한 공산주의자가 일군의 청년들을 두고 서로 대립하는 장이 된다. 이는 마치 선악의 대결 구도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대결을 곧 ‘반공주의’로 수렴시켜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허무주의자인 권찬혁에게서는 어떤 전의(戰意)는커녕 대안적 정견조차 찾을 수 없다. 이에 그의 패배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남로당을 비난하되 직접적으로 반공주의를 설파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흥미로워 보인다. 『지리산』에는 당대 시국을 염려하고 영민한 청년이라면 누구든 공산주의자가 되는 운명을 피해갈 수 없다는 태도가 전제되어 있다. 작중에서 이러한 태도는 “나이 20에 공산주의자 아닌 사람은 바보이고, 30에 공산주의자로 있는 자도 바보”라는³⁷⁾ 작중의 한 구절로도 요약된다. 요컨대 공산주의는 중장년의 시각에서 본다면 허무맹랑한 이상론이라 비판할 수 있겠지만, 청년의 시각으로 본다면 매료되지 않을 수 없는 이념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앞서 이현상과 권찬혁의 일방적인 대결 구도에서 짐작되듯이, 공산주의로 달려가는 청년들의 운명을 막아낼 수는 없다. 이는 『지리산』을 반공주의 텍스트라 쉽게 일컬을 수 없는 근거이자, 해방 이후 공산주의 문제를 다루는 『지리산』 텍스트 특유의 이질성을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텍스트에는 현실

36) 위의 책, 307면.

37) 『지리산』2, 315면.

화된 공산주의에 대한 냉정한 부정의 태도와 청년이 품은 이상적 공산주의를 향한 인정의 태도가 공존한다. 이 이중성을 설명하려 할 때 좀 더 까다로운 것은 아마도 후자일 것이다. 전자의 경우 남로당의 권위적이고 교조적인 체계를 그려내는 과정 자체가 곧 현실화된 공산주의에 대한 부정과 상통한다는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명론이라 불려도 좋을 저 논리, ‘바보가 아닌’ 즉 영민한 청년이면 공산주의를 만나게 된다는 저 수용적 인식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 것인가.

4. 비전향의 지조와 그 적들

반공주의란 용어 그대로 공산주의에 반(反)하는 것이지, 누가 공산주의에 반대하느냐는 ‘적대의 주체’는 열린 채로 남아 있다. 다만 한반도의 근현대사에서 그 적대의 구도는 좌익과 우익의 대결, 선(우익)과 악(좌익)의 대결로 치환된다. 일반적으로 반공주의 텍스트는 이러한 전형성을 클리셰로 흡수하여 우익의 승리 혹은 윤리적 우월성을, 좌익의 패배 혹은 악의 자질을 강조하는 구도를 취한다. 영민한 청년은 공산주의자가 되기 마련이라는 『지리산』의 운명론적 시각은 일견 공산주의가 지닌 마성적 유희를 강조한다고 해석한다면 기존 선악의 구도에 부합하겠지만, 이를 민족의 운명을 염려하는 청년의 필연적 선택지라는 의미로 읽는다면 기존의 선악 구도에서 벗어나게 된다.

해방 직후 좌우익의 첨예한 대립 시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음에도 좌익에 대항하는 우익의 정치적 이념이라든가 정치 세력의 존재감이 거의 없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이 소설에는 공산당에 맞서는 정치 세력의 대표로서 이승만이 등장하지만, 이는 개별 정치인으로서 이승만이 갖는 노련함과 승부사적 기질에 대한 예찬에 가까우며 그를 우익 그룹 혹은 국민국가적 차원에서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이념적 상징으로 설정한 것은 아니다.

이는 『지리산』에 이어 발간된 장편 『남로당』의 주요 특징이기도 하다. 남 부군 출신의 생존 인물 박갑동의 수기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소설은, 박 현영을 측근에서 보필하며 남로당의 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보았던 인물 인 박갑동의 일대기를 다룬다. 허구 서사보다는 실제 박현영·박갑동의 전기적 기록 및 남로당 약사에 의존하여 사건이 전개되고, 이때 박갑동은 관찰자로서 독자에게 찬탁운동, 경관사 위폐사건, 여순반란사건 등 해방 후 주요 공산당 관련 사건들을 요약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남로 당』은 박현영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조직의 활동에만 집중한 작품이지만, 이러한 정치적 대결의 국면에서조차 맞수로 설정되는 것은, 노련한 정치 인으로서 이승만 정도에 불과하다. 임시정부 김구 계열의 정치인들이나 중도세력을 표방했던 여운형, 신익희 등은 단편적으로 언급된다. 『남로당 』이 이승만을 묘사하는 방식 또한 『지리산』과 같다. 우익 세력이나 정치 이념을 상징한다기보다는 공산당을 정략적으로 이용할 만큼 출중한 계략 을 구사하는 개별 정치인으로서 묘사되는 것이다.

『지리산』에서 공산주의를 가장 경계하고 반대하는 인물들은 박태영과 이규를 염려하는 민간의 중장년층들로, 작중 하영근과 권창혁 등이 대표 적 인물에 해당한다. 이규의 친척으로, 하동의 대지주이자 일본에서 외국 어대학을 졸업한 지식인인 하영근은 박태영과 이규를 “친동생이나 아들” 처럼³⁸⁾ 아낀다. 그 친밀감(amity)은 단순한 우정의 수준을 초월한 것이어 서 하영근은 그들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재력과 연줄을 아낌없이 동원 한다. 두 청년의 보호자로서 하영근의 역할이 최대치에 이르는 장면은 앞 서 보았듯 자신의 친구이자 전향한 마르크스주의자인 권창혁을 보광당에 들어 보내는 대목이다. 이유는 단 하나, 박태영이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 을 막는 것이다. 권창혁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원서로 읽히면서 공산주 의를 이론적으로 객관화하기 위한 수업을 진행한다. 공산당은 “한번 입당

38) 『지리산』2, 315면.

하면 배신자 또는 타락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고는 벗어날 수가 없으니 최대한 신중하게 천천히 지켜본 뒤 입당해도 늦지 않다”며³⁹⁾ 간곡히 당부한다.

거슬러 올라가면 하영근은 이미 식민지 시기부터 박태영과 이규의 후원자로서 이들이 무사히 성장하도록 보살피는 역할을 맡았다. 당초 『지리산』의 보광당 삽화에서 그려지는 고난이란 식량의 부족, 구성원 간의 마찰, 질병의 발생 같은 일차원적 생존의 문제들이었다. 가령 경찰의 추적이라든가 가족이나 친지에 대한 연좌제적 심문과 보복 등 총독부 경찰치하의 학병거부자가 당면했을 법한 치명적 위협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현실과 개인의 불화에서 생겨나는 인물의 방황과 갈등을 기록하는 것이 근대서사물로서의 소설의 본령이라 할 때, 『지리산』에 기술된 보광당의 이야기는 마치 동화나 중세 기사담과도 같은 낙천적이며 순진한 모험담에 가까운 것이다. 강력한 일본제국의 경찰은 허술하기 짝이 없고, 조직원 간의 갈등은 화해와 양보를 통해 더욱 굳은 결속을 낳는다.

이때 산속의 동화적 은신처, 작가가 ‘화원(花園)’이라 불렀던 은신처와 현실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깥세상 사이에서 방어막 역할을 수행한 것이 하영근이다. 아래의 인용은 그 대표적인 일화에 해당할 것이다.

태영의 아버지는 머리가 좋은 아들에게 은근한 기대를 가졌었다. 장차 고등 문관 시험에 합격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고등농림학교를 졸업해서 군수라도 한자리할 수 있는 방향을 택할 것을 원했다. 태영은 이러한 아버지의 꿈을 산산이 부숴놓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철창 신세까지 지게 해놓았다. 태영은 경찰에 끌려간 아버지가 얼마나 비굴하게 손발을 모아 빌었을까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했다. 자기가 겪는 고생이라면 그 천 배, 만 배도 견디어낼 자신이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대신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니 태영은 도무지 견디어 낼 용기가 없었

39) 『지리산』3, 120면.

다.⁴⁰⁾

박태영과 하준규의 부친들이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보광당의 존폐를 뒤흔들만한 최대의 위기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위의 인용은 부친이 경찰에 체포된 이후 박태영의 심경을 서술한 부분이다. ‘학병기피자’로 찍힌 데다 지리산에서 단체로 생활한다는 사실이 세인에게 알려졌던 만큼 이들의 가족을 경찰에서 곱게 내버려 둘 리가 없었겠다. 이는 학병지원을 앞두고 조선인 청년들이 순순히 징병에 응해야만 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자신과 하준규의 부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굳건하던 박태영의 결심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고민 끝에 하준규와 박태영은 경찰서를 습격하기로 계획을 짜지만 이내 부친들이 풀려났다는 소식에 안도한다. 하영근이 경성의 경무국장을 직접 만나 “일금 오만 원의 국방헌금”을⁴¹⁾ 내며 그들의 석방을 주선한 것이다. 물론 지리산의 두 청년은 이러한 사정을 알 턱이 없다. 청년들을 위해 총독부의 유력자를 찾아 국방헌금을 낸, 영락없는 ‘친일파’가 된 셈이지만 하영근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는 박태영을 위해 보광당으로 돈과 식량을 보낸다. 심지어 박태영의 청을 들어 본인 명의의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는 총기들을 보내 보광당의 무장을 돕기도 한다. 절친한 친구인 권창혁을 보광당으로 들여보내 청년들이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을 막는다.

박태영이나 이규를 위해 하영근이 해내는 일들은 단순한 금전적 보조 따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헌신에 가깝다. 이 헌신의 정도는 진한 우정이나 사랑이 주는 감동을 넘어서 일종의 의구심까지도 불러 일으킨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이들 청년에게 헌신하는가. 그는 가난한 군청서기이자 ‘뻗속까지 노예근성이 박힌’ 아버지를 둔 박태영, 몰락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반인 아버지를 둔 이규의 보호자이다. 두 청년에

40) 『지리산』2, 269면.

41) 위의 책, 273면.

게 하영근의 저작은 식민치하 공교육에서 금지한 지식을 얻는 시사 토론장이자 서점이고, 든든한 후원자가 버티고 있는 고민 상담소이자 언제든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이다. 요컨대 하영근은, 공산주의를 포함해서 이들 청년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모든 요인들을 막아주는 수호자, 재력과 연줄을 비롯해서 상황적 판단력과 지식 등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보호자’이다.

이렇듯 청년들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존재란 상징적으로 본다면 부재했던 ‘국가’를 대신해서 불행한 청년 세대를 염려하는 부성(父性)의 등장이랄 수도 있으며, 서사론적으로 본다면 학병세대의 역사에 결정적으로 개입하는 작가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저러한 상징정보보다도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청년들을 추적하는 경찰들로부터 혹은 공산주의의 매혹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호자가 보여주는 사적(私的) 속성이다.⁴²⁾ 그는 청년들이 부디 정치사회적 국면에 대한 관심을 거두고 유학을 통해 학업에 정진하기를, 그리하여 혼란한 시국을 피해서 안전하게 처세하고 장차 단란한 가정을 일구기를 바란다. 요컨대 하영근은 청년들을

42) 이는 『지리산』을 하영근과 박태영, 이규의 사제 관계에 근거한 교육소설 혹은 계몽소설로 읽어내는 기존의 독해방식과 비교할 때 그 변별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김윤식 교수는 작중 하영근과 두 청년 간의 관계에 대해 “작품 『지리산』은 이데올로기 비판소설도 아니고, 빨치산소설도 아니며, 일종의 교육소설의 범주에 드는 것이다. 계몽소설처럼 이것은 교사와 학생 관계가 중심구조를 이루며, 이 구조는 또 다른 유사한 작은 구조를 낳는다.”(김윤식, 「지리산의 사상과 『지리산』의 사상, 『지리산』7, 384면.)고 밝힌 바 있다. 하영근과 두 청년 간의 세대 차이와 하영근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국제 시사나 교양에 대한 교육 등은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하는 주요 논거가 된다. 다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교양소설의 기본적인 도식에 적용해 보았을 때, 『지리산』의 설정은 그 교육의 방향성이 반대가 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하영근은 기본적으로 이들에게 교양이나 시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교육을 통해 이들에게 바라는 바는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교양소설이나 계몽소설의 경우와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그는 이들을 당대의 정치사회적 갈등의 현장으로 내보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설득하여 학업이나 유학 등과 같은 안전지대에 잡아두려 한다. 비단 지식의 제공뿐만 아니라 금전적 지원, 삶의 설계 전반,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 혹은 뒷수습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하영근의 모습은 스승보다는 부모의 모습에 가까우며, 사제 관계는 스승의 역할까지도 포괄하는 부모의 태도 속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대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지리산』은 청년들을 매혹하는 공산주의와 그 매혹에 빠져드는 청년들, 이들 청년을 ‘만류’하는 장년들의 조바심으로 채워져 있다. 그 조바심은 작중에서 태영과 이규를 둘러싼 부모, 친족, 하영근을 비롯한 향리(鄉里)의 장년들이 말끝마다 입버릇처럼 붙이는 “자중자애하라”⁴³⁾는 당부에서 드러나기도 한다. 아래의 인용은 이규의 큰아버지가 그 조카와 문중을 염려하여 당부하는 말로, 당대 장년들이 청년들을 지켜보는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재주가 승하면 덕이 박하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지금은 재주를 나타낼 때가 아니고 숨겨야 되는 때다. 규야, 너는 앞으로는 아는 척을 말아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한도에서 남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조금 어리석게 굴어야 하느니라. 모처럼의 재주가 화가 안 되도록 근신하란 말이다.⁴⁴⁾

이러한 장면은 식민지 시기 천황제 파시즘에 대항하는 우국지정(憂國之情)으로서의 정치운동에 뛰어든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부딪쳐야 했던 궁극의 저항선이 이들과 적대하는 외부가 아니라 이들을 품는 내부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모, 친지 등으로 얽혀 있는 친족공동체, 혈연과 지연으로 서로의 삶을 떠받쳐온 전근대적 토대는 ‘내부의 장애물’로서 이

43) 작중에서 “자중자애하라”는 당부는 여러 상황에서 반복되어 사용된다. 양심적 지식인인 일본인 교장이 학생들에게 당부하는 말(1:130), 하영근이 보광당의 박태영에게 당부하는 말(2:183, 2:304) 등에 번번이 등장한다. 무탈함을 비는 인사말로 쓰인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혼란한 시국에서 청년들에게 신중할 것을 당부하는 의미가 크다. 이에 학병징집을 피해 도피하려는 자신의 제안에 대해 망설이는 이규를 향해 박태영은 냉소하듯 ‘자중자애하라’는 말을 던지기도 하는 것이다.(2:95) 이때 ‘자중자애’라는 말은 이규를 ‘회색의 군상’(95)이라 지목하는 맥락에서 쓰였다.

44) 『지리산』1, 52면.

들의 정치사회적 일탈을 막으려 한다. 혁명성을 강조하는 공산주의는 항상 ‘금기’의 최상급에 놓였던 만큼 강력한 매력을 발산하기 마련이다. 반면 가족과 친족의 안전과 발전에 헌신하라는 요구는 청년들에게는 이기적 세속화의 요청이나 매한가지이다. 이에 공산주의, 적어도 관념화된 공산주의는 세속화되지 않으려는 개인의 윤리적 요청과도 강하게 결합될 수밖에 없다. 이에 현실화된 공산주의는 혐오의 대상이 될지언정 청년기의 이상으로 품었던 공산주의는 ‘부정할 수만은 없는 정당성’을 지닌 애착과 자기연민의 대상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지리산』이 품고 있는 공산주의에 대한 이중적 태도의 원천이자, 작가 이병주가 그려내고자 했던 공산주의 영역 바깥의 공산주의 즉 ‘비-공산주의’라는 제3지대의 정서를 이룬다.

공산주의자가 된 청년을 중심으로 불거지는 가족 갈등의 정도는 그것이 재산이든 지역사회에서의 권력이든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도 많다’는 비례 관계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학병세대는 식민지 시기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부르주아 인텔리 집단이며, 이들에게는 일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해야 할 책임이 따른다. 천황제 파시즘의 저항 사상이었던만큼 청년 공산주의자가 마주쳐야 했던 가족과의 갈등은 비단 조선 청년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전향의 시대’라고 불렸던 일본의 ‘쇼와(昭和) 10년대’에 조사된 마르크스주의자의 전향 이유 중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던 것이 바로 ‘가족관계에 의한 것’이었다.⁴⁵⁾ 이때 가족관계란 “전통적·가부장적 권위가 지배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추상화 작용이 거부되고, 화합의 원리가 관철됨으로써 대립의 모든 계기가 차단”된다는⁴⁶⁾ 특징을 갖는다. 부모나 가족의 만류로 인해 더이상 자신의 사상을 고집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았다는 의미인데, 특히 사람이 곧 일손으로 치환되는 농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프롤레타리아 일반에 대한 성실성”이 도리어 “가까운 것에 대

45) 이에나가 사부로 엮음, 앞의 책, 320면.

46) 위의 책, 321면.

한 무책임을 초래”한다는 자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⁴⁷⁾ 부양해야 할 부모와 가족, 혹은 연좌제로 연결되어 있는 친족들이란 공산주의자에게 있어 적인가 아군인가. 선악이나 피아(彼我)의 구분을 벗어나는 지대에 존재하는 이들이야말로 공산주의자들을 옥죄는, 현실적으로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다. 공산주의 투쟁에 있어서 척결대상으로 꼽혔던 ‘봉건적 습속’의 거대한 실체를 대면하는 순간 대부분의 공산주의자는 사상을 포기하기 마련이라는 뜻이겠다.

이제 『지리산』이나 『남로당』이 공통적으로 소설의 첫머리에서 ‘일가불이’의 중요성을 확인시키는 데에서 출발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지리산』의 첫 장면은 1933년 추석, 갓 열 살이 된 이규가 조부의 묘역에 성묘를 떠나는 삽화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린 이규 형제와 동행한 작은 숙부는 독립운동으로 6년여 징역을 살고 나와 “아들 가운데서 가장 쓸모없는 놈”이란⁴⁸⁾ 핀잔을 듣는 인물로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쏟는다. 성묘 이후 규는 집안의 족보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 삽화는 이른바 ‘족보’의 정신, 즉 지리산 자락에 터를 잡고 대대로 번성한 이규 일가의 영속성을, 또한 이규가 그러한 친족 관계 속에 놓인 인물임을 상기시킨다. 한때 천석꾼 집안으로 불렸으나 이제 자신의 아버지 대에 이르러 쇠락의 길에 접어들었으며, 아버지를 비롯하여 그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짊어진 이규에게 어떤 선택의 자유가 있을 리 없다. 이와 같은 이규의 처지는, 군청의 말단 서기로 일하는 아버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공산당에 가입한 박태영이 막상 자신이 선택에 대해 환멸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공산주의자로 남는다는 설정과 대조를 이룬다. 박태영은 이규를 향해 “양지쪽만 찾아 걷는 인간”이라⁴⁹⁾ 냉소하면서도 이규의 행복을 빌어준다. 이 시선은 거꾸로 본다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47) 위의 책, 325면.

48) 『지리산』1, 21면.

49) 『지리산』4, 82면.

지는 박태영을 향한 이규의 부끄러움과 부채의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족을 위협하게 만드는 사상운동이란 애초 이규의 선택지에는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소설 『남로당』의 프롤로그에 등장하는 성진사 집안의 비극을 담은 삽화는 일견 소설의 본문과 전혀 연결점이 없다는 점에서 의아해 보인다. 성진사는 공산주의자가 되어 귀향한 아들을 경찰에게 들키지 않도록 몰래 가둔 채로 설득하다가 끝내 아들을 잃는다. 이 프롤로그는 생존한 남로당원인 박갑동의 일대기나 박현영의 일생과 전혀 겹치는 지점이 없다. 이 삽화는 공산주의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일가붙이로 엮인 이들이라는 점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리산』에서 이미 보았듯이, 이 또한 청년들의 일탈을 우려하는 시선으로 쓰인 삽화이다. 청년들에게 결코 단독자로 존재할 수 없음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인망가패(人亡家敗)란 말이 뇌리를 스쳤다. 그 가족의 누군가가 독립운동에 뛰어들면 사람 망신하고 재산을 파산하게 돼 있는 것이다. (중략) 성진사는 백 리 이내의 거리에 있는 이른바 명문(名門)들이 독립운동하는 아들들 때문에 망한 사례를 두루 챙겨보며 한숨을 쉬었다. (중략) “만석꾼 아들이 뭐 답답해서 공산당을 했을까?” “만 석 재산보다 공산당이 좋은 걸까?” “도대체 공산당은 어찌자는 것일까?” 이런 말들이 지리산 언저리에 퍼지게 되면서부터 학교 다니는 아들딸 가진 그 근처의 지주들은 그 아들딸들이 공산당의 물이 들까봐 전전긍긍 신경을 쓰게 되었다.⁵⁰⁾

공산주의에 반하는 것이 반공주의라면, 가족관계의 그물망이란 ‘태생적으로’ 반공주의를 배양하는 훈련기관으로 기능한다. 작가 이병주가 보여주는 공산주의에 대한 태도는 이렇듯 태생적인 반공주의의 벽 앞에 좌절

50) 이병주, 「어느 삽화로 된 서장」, 『남로당』1, 기파랑, 2015, 13면, 41면.

하는 부르주아 지식인 청년의 운명이라는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해방 이후 냉전과 더불어 국가적으로 ‘기획된 반공주의’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것이며 친족공동체의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배양된 것이다.

이에 『지리산』은 엄밀히 말하자면 공산주의보다는 그 금기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공산주의자의 이론적 무장보다는 시세의 유불리에 흔들리지 않는 ‘비전향의 지조’를 경외하는 텍스트이다. 이는 소설의 결말에서 남로당 조직에 대한 환멸을 품고도 끝내 ‘당적이 없는 공산주의자’로 죽음을 선택하는 박태영의 태도를 이해할 단서이기도 하다. 공산당에 가입한 박태영은 곧 소련 당국의 눈치를 보며 충성경쟁에 몰두하는 고위 당간부들의 권력욕과 출세욕에 환멸을 느끼게 된다. 그가 끝내 공산주의자로 남아서 죽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소설의 대부분을 남로당이나 공산주의 운동의 교조적이며 위선적인 속성을 공격하는 데 할애했으니 그 이념에 어떤 미련이 남아서는 아니겠다. 그럼에도 그가 죽는 순간까지 공산주의자여야 했던 까닭은 그가 공산주의를 선택하는 순간에 등져야 했던 존재들, ‘자중자애하라’며 한사코 정치 운동을 만류했던 이들에게 속죄하되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낼 유일한 방법이 그뿐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당적 없는 공산주의자로 죽는 것’은 비전향의 지조를 표명하는 가장 극단적 방식이다.

5. 결론_어떤 윤리적 잣대의 감각

이 글은 『지리산』을 통해 작가 이병주의 세대적 특성이 어떻게 허구적 서사에 개입하느냐를 중심으로 쓰였다. 학병세대의 일원으로서 작가 이병주를 바라본다면, 하준수는 자궁심의 원천이겠으나 남도부는 해명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이중부역에 대한 세간의 비난이 하준수이자 동시에 남도부로 불리는 문제적 인물을 소환하게 만들었고, 그가 조직한 보광당

을 항일조직의 거점으로 그려내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남도부가 끝까지 공산주의자로 죽어간 사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지리산』의 주인공 박태영은, 작중 하준수의 허구적 인물로 등장하는 하준규와는 별도로 청년 시절의 남도부를 대신할 인물로서 창조된 것이다. 그는 지리산 보광당을 대일투쟁의 거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국의 운명을 걱정하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청년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출현했던 공동체주의의 원형적 공간으로 그려낸다. 이는 현실 공산주의 정치체와는 구분되는 이상적 공산주의 공동체의 실험, 즉 ‘비-공산주의’의 실험이다. 성장소설의 구도처럼, 순수한 공동체주의의 장(場)인 ‘화원’에 머물던 청년들은 현실 공산주의 정치체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공산당에 합류한다. 이러한 수동성이 하준수와 학병세대를 공산당(남로당)과 분리시키는 효과를 불러온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산』은 전형적인 반공주의 텍스트가 아니며 발표 당시 반공소설이라는 평가와 용공소설이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았던 진귀한 텍스트이기도 하다. 양극단을 동시에 품는 복합성, 다시 말해 공산주의를 향한 애증의 태도는 어디에서 어떻게 기인하는가. 이 글은 『지리산』의 보광당 서사를 비롯해서 작중 청년 인물들의 선택에 깊이 개입하는 인물인 하영근의 역할 분석을 통해, 그가 엄혹한 현실로부터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청년들을 분리하고 보호하는 데 몰두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좌우대립의 혼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공산당과 맞설 만한 뚜렷한 정치적 ‘적대세력’이 언급되지 않는 텍스트에서, 하영근은 이들 청년들을 공산주의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개인적인 명예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걸 정도로 적극적인 인물이다. 정치적인 일탈을 저지르지 말고 장래를 위해 개인적인 영달과 처세에 힘쓰라고 청년들에게 당부하는 그의 모습은, 이른바 혈연이나 학연으로 지칭되곤 하는, 이들 청년들의 사적 영역에 존재했던 후원자와 보호자들 일반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일가의 운명을 의탁하는 부모와 친족이라는 존재들의 간

곡한 만류는 아무리 공산주의 이론으로 철저히 무장했다 하더라도 뚫고 나갈 수 없는 강력한 현실적 장벽이 되곤 했던 것이다. 지켜야 할 재산과 일가가 클수록 이러한 장벽은 더욱 강력하게 군림할 수밖에 없다. 친족공동체는 비단 정치적으로 적대해야 할 세력을 찾기에 앞서, ‘부르주아 지식인’ 출신의 공산주의자가 일상에서 마주치게 되는 내부적 장애이자 태생적인 반공주의 교육장인 셈이다. 일가붙이의 요청을 따르자면 공적인 대의에 대한 고민과 참여를 배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청년 시절의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은 사적인 이익과 처세를 얼마나 외면할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윤리적 잣대로 변모한다.

이에 『지리산』에서 ‘전향의 문제는 현실 정치체로서의 공산당이나 그 이념적 토대로서의 당성을 배반했느냐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당초 천황제 과시즘에 저항하며 은신하던 일본의 지식인에게서 공산주의자의 지조를 배웠던 것처럼, 작중의 인물들에게는 일가붙이들이 원하는 ‘어른’이 되지 않고 청년 시절의 순수성을 지켜내느냐의 여부가 ‘전향의 기준’이 된다. 대의를 염려하는 청년들의 선택과 그 ‘비전향의 지조’를 공산주의라 호명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자기연민과 사랑의 대상이다. 동시에 그 순정한 청년들의 마음을 정치적으로 농락한다는 점에서 현실 정치체체로서의 공산주의는 강력한 증오의 대상이 된다. 이렇듯 공산주의에 대해 착종된 감정이 만들어내는 서사의 복합성은 『지리산』을 도식적인 반공주의 텍스트의 늪으로부터 구해내는 힘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이병주, 『지리산』 1-7, 한길사, 2006.
이병주, 『폐자의 관』, 바이북스, 2012.
이병주, 『남로당』 1-3, 기파랑, 2006.
이병주, 『중립의 이론』, 국제신보사출판부 1961.

2. 단행본

- 강덕상, 『일제강점기 말 조선 학도병의 자화상』, 정다운 역, 선인, 2016.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학병 세대와 한국 우익의 기원』, 느티나무 책방, 2017.
김윤식, 『한일 학병세대의 빛과 어둠』, 소명출판, 2012.
김윤식 · 임현영 · 김종희 편, 『역사의 그늘, 문학의 길』, 한길사, 2008.
안경환, 『이병주 평전』, 한길사, 2022.
이태, 『남부군』, 두레, 2014.
조남현, 『6.25 대하소설 연구』, 서정시학, 2021.
이에나가 사부로 엮음, 『근대 일본 사상사』, 연구공간 수유너머 일본근대사상팀 옮김, 소명출판, 2006.

3. 논문

- 김건우, 「운명과 원한-조선인 학병의 세대의식과 국가」, 『서강인문논총』52, 2018, 105-135면.
서은주, 「소환되는 역사와 혁명의 기억-최인훈과 이병주의 소설을 중심으로」, 『상허학보』20, 2010, 135-174면.
이재복, 「한 휴머니스트의 사상과 역사 인식」, 『폐자의 관』(해설), 바이북스, 2012, 107-121면.
이혜령, 「해방(기):총 든 청년의 나날들」, 『상허학보』27, 2009.10, 9-50면.
임경석, 「산에서 쓴 편지-남도부 부대 정치위원 안병렬이 남긴 생애 마지막 기록」, 『역사비평』76, 2006.8, 307-328면.
정미진, 「공산주의자, 반공주의자 혹은 휴머니스트: 이병주 사상 재론」, 『배달말』63, 2018.12, 469-496면.
정주아, 「학병세대와 군인정치의 시대 그리고 법적 정의-이병주 문학에 나타난 원한과 법의 문제」, 『철학·사상·문화』35, 2021, 453-483면.

<Abstract>

The Communism of the Bourgeois Intellectuals in Lee Byung-ju's Novel *Jirisan*

Joung, Jua

Korean writer Lee Byung-ju was mobilized as a student soldier for Japan's Pacific War. The student soldier generation was criticized for working for the Japanese army even though that was against their will. They were also suspected of working for communism during the postwar trusteeship period. The novel *Jirisan* (meaning Jirisan Mountain) was written to rebut these two criticisms. Firstly, the main character organizes an anti-Japanese guerrilla in Jirisan Mountain against the student soldier deployment. Secondly, he dies as a communist, but not being part of the party. This narrative holds ambivalent attitudes toward communism: criticism on the Communist Party as a dogmatic organization, and respect for conscientious bourgeois intellectual communists who sacrifice themselves for a great cause.

Key words: Lee Byung-ju, *Jirisan*, South Korean Workers' Party (Nam-ro-dang), communism, anti-communism, student-soldier generation, bourgeois

투 고 일: 2022년 11월 30일

심 사 일: 2022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16일

수정마감일: 2022년 12월 26일